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5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2일(음력 3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의성 고운사 산불 피해 현장 모습. 고운사는 산불로 인해 전각 30동 중 21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아 있는 범종의 모습이 안타깝다. 사진제공=조계종 기획실

최악 산불에 천년고찰이 무너졌다

화마에 고운사 연수전 등 전소
전각 30동 중 21동 소실 확인
청송 보광사 만세루 등도 소실
절 지키던 법성사 주지 입적해
성보 이운으로 추가 피해 막아
진우스님 현장 방문, 지원 약속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최악 산불로 기록될 영남 산불에 천년고찰들이 무너졌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마로 인해 잿더미로 변했고, 의성·청송·안동 지역의 고찰도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3월 27일 현재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찰은 의성 고운사·운람사·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이다.

의성 고운사는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비화(飛火)로 인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다. 소실된 전각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포함됐다.

의성 고운사는 화마가 덮치기 전인 3월 24일 이동이 가능한 불상, 불화, 고서 등 비지정 유형문화유산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했다. 소장 중이었던 보물 석조여래좌상도 3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안동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앞서 의성 운람사는 3월 23일 확산된 산불로 모든 전각들이 소실됐다. 이번 화재로 전각과 부속 건물 7개동이 모두 불에 탔고, 주변 산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운람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은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삼존불, 탄생불, 신중탱화 등 불교유산을 조문국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해 옮겨 추가 피해를 막았다.

청송 보광사는 경내 전각인 만세루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광사 만세루는 조선 세종이 부사 하담(河澹)에게 명해 건립한 청송 심씨 시조인 심홍부의 묘재각(墓齋閣)이다. 월막리에 15세기 건립된 찬경루와 같이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보광사 극락전은 화마를 피했다.

의성 만장사는 3월 26일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됐으며, 나머지 두 동의 건물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유형문화유산인 석조여래좌상은 방염포로 포장해 일부만 훼손됐으며, 소장 불상 2점은 군청 관할 박물관으로 이운됐다.

안동 용담사의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은 소실됐으며, 통일신라 석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던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경북유형문화유산) 또한 전소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조계종은 화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의성 산불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성보 이운 현장 지휘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회 오심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장정화 전 대한불교청년회장과 함께 3월 26일 7시 30분 의성 고운사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진우 스님은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만나 고운사의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산불 진화에 노력 중인 유관기관과 사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화마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에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가에서도 비상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산불로 망실된 사찰과 문화유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뿐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불에 사찰을 지키던 스님이 화마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다. 법화종 등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 석보면 법성사 주지 선정 스님이 소사 상태로 발견됐다. 3월 25일 오후 5시 40분쯤 산불이 석보면으로 확산됐고, 영양군은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알렸다. 하지만 선정 스님은 법성사 대웅전 옆 건물에서 입적해 있었다. 〈관련기사 3면〉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이웃 행복이 나의 행복 세상에 진 빚 보시로 회향"

강금자 코끼리부동산 대표 후원
뚜카사리 사원학교에 4기 완공
재학생 294명 · 주민 1000명 혜택

"누구나 세상 살면서 빚진 것 하나 없겠습니까. 그 빚은 보시로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갚아가야죠. 이웃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지니까요."

강금자 평택 코끼리부동산 대표의 온정이 또 한 번 미얀마의 맑은 물길을 열었다. 이는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한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4번째 성과다.

이번 정수시설은 미얀마 양곤 사우스 다곤 지역의 뚜카사리 비구니 사원학교에 지어졌다. 이제 이곳 비구니스님과 학생 294명, 마을주민 1000여 명은 강금자 대표의 후원 덕분에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강 대표가 처음 정수시설 후원을 결심한 것은 2019년, 아버지를 떠나보낸 직후였다. 평소 신심 깊은 불자인 그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불교 언론을 통해 정수시설 사업을 접했다.

강 대표는 "아버지가 생전에 참 고생하셨는데, 나라도 뭔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수시설 지원 사업을 보았을 때, 대중에게 꼭 필요한 일이자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 후 강 대표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두 곳씩 꾸준히 정수시설을 후원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말들이 후원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훨씬 기쁘고 보람됐다"며 "누군가에게 보시를 베풀면 결국 그 보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데도 상관없다. 남을 도우면서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보시에 대한 남다른 철학도 갖고 있다. 그는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생에서 수많은 업을 지었다. 그렇기에 가만히 앉아서 '복을 달라'고만 할 수 없다"며 "내가 먼저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나눔 실천은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사무실 한편에 '불우이웃돕기 상자'를 마련해 두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보시의 기회를 권유하고 있다. 강 대표는 "누군가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만드는 것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의 목표는 70세까지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도록 살자. 이것이 내 인생 철학입니다. 돈을 아끼기만 한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김내영 기자



뚜카사리 비구니 사원학교 스님과 학생들이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다.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2025. 4. 3(목) – 4. 6(일)
서울 강남 COEX전시장 C홀
★ 히든 담마(Hidden-Dhamma)챌린지 ★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부디즘 어드벤처@코엑스
바른 견해(정견) Right View
바른 생각(정사유) Right Intention
바른 언어(정어) Right Speech
바른 행동(정업) Right Action
바른 생계(정명) Right Livelihood
바른 노력(정정진) Right Effort
바른 기억(정념) Right Mindfulness
바른 삼매(정정) Right Concentration
팔정도 · The Eightfold Way
4월 코엑스에서. 8장의 팔정도 카드를 모아 나만의 깨달음을 찾는 특별한 퀘스트에 참가해보세요!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불교신문
기획·운영 MIND DESIGN
문의 02-2231-2013